하나님 뜻이 죽도록 싫은 이유

(에스겔 17:1~24)

11.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2.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 가고
13.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의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14.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15.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이 죽도록 싫은 이유>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 뜻이 죽도록 싫은 이유'
선민에게 있어서 불행한 특권은 하나님의 뜻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이유를 다 대면서 하나님의 뜻을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독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선민들의 모습을 보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해결 방안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죽도록 하나님의 뜻이 싫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의 예언활동 시기에 바벨론은 이미 1차와 2차에 걸쳐 침공을 했습니다.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켜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아갔고,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직 망하지 않은 남 왕국 유다에 대해서 예언활동을 하였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이들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예언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언의 요점은 바벨론의 침공이나 지배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 왕국 유다는 망해가는 와중에도 여전히 애굽에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두 독수리의 비유로 나타납니다.
선민들이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럴듯합니다. 바벨론이 세운 시드기야 왕조차도 나라를 멸망시키려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바벨론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배하에 있을 때에 얼마나 일본을 싫어했는지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요즘도 일본이 망언을 할 때마다 국민적 분노가 표출됩니다. 이

런 관점에서 보자면 시드기야 왕과 선민들이 바벨론을 싫어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민들이 하나님의 뜻도 그렇게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민지 시절에 일본을 싫어했듯이 선민들은 하나님의 뜻을 싫어했습니다. 바벨론을 싫어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뜻도 싫어한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싫어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주님의 기도를 따라하지만 실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기만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일본에게 다시 식민지가 되어야 한다면 얼마나 싫을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나 싫어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고 있다는 실상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처럼 싫어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합니다.
본문 마지막의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고 말씀하시며 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말하다'라는 의미는 생각과 뜻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생각과 뜻이 들어있지 않은 말은 단지 소리일 뿐입니다.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다시 해석하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써 뜻하고 생각하고 의도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고 이루느니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로써 생각하시고 스스로 있는 자로써 말씀하시고 스스로 있는 자로써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유다 왕조의 시조였던 다윗은 시편 139편 17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금과 은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24절은 이렇게 보물 같은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며 이루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들은 이 보물 같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이루신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스스로 지켜야만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내가 지킬 대상이 아니라 올라타야 할 대상입니다. 나를 사로잡고 태워서 달려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명품 외제차로 바꿀 생각을 하지 말고 모래알처럼 많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나에 대한 뜻을 올라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올라타기 위해서 별도의 비용이나 수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민들은 이것을 몰랐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만 하니 너무 힘들고 수고롭기만 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라는 취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지 내 뜻만을 주장하느라 여념이 없지만 그나마 성실한 성도들은 이러한 설교를 듣고 지켜보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지키려고 할 때마다 힘이 드니 싫어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힘만 들지 지켜지지도 않습

니다. 힘만 들고 지킬 수도 없으니 점점 하나님의 뜻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멀어지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올라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올라타고 나면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전혀 힘들지 않게 됩니다. 부산에 가기 위해서 기차나 비행기를 타면 내가 뛸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올라타게 되면 그 뜻이 이루어질 삶의 현장에서 나의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치 강에 배를 띄우고 물이 흐르는 대로 뱃놀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자로써 생각하고 뜻하는 바를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러하신 하나님의 뜻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올라탈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의 특징은 처음부터 천국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던 그 천국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 보좌에는 여전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외 없이 천국 보좌에서 나와 이 땅으로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올라탈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으로 내려왔을 때에 내 마음이 이 땅에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올라탈 수는 없습니다.

동계 올림픽 이후에 강릉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고속전철이 생겨서 통행이 크게 편리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고속전철은 지정된 역에서만 탈 수 있습니다. 달리는 고속전철에 올라타려고 시도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와 같습니다. 하늘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뜻이 달리고 있는데 땅에 있는 내가 올라타려고 하니 겁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만 한다고 설교로 강박관념을 심어줍니다. 달리는 고속전철에 뛰어들어서 자리 잡고 앉으라는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목사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성도들은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뜻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올라타야만 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올라타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이 뜻이 출발하는 하늘로 가지 않는다면 결코 올라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릉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전철을 타고 싶다면 반드시 강릉으로 와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발 이땅 행 하나님의 뜻을 올라타기 위해서는 마음은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뜻과 생각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미 문자로 주어진 십계명이나 율법들도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됩니다.
계명과 율법은 멈춰선 열차가 아닙니다. 고속전철과 같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율법과 계명이라는 문자로 표현된 하나님의 뜻이 출발하고 있는 하늘로 가지 않는다면 올라탈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결코 나쁘고 해롭고 무거운 것이 아

닙니다. 율법과 계명은 나를 태우는 열차입니다. 다만 우리의 잘못된 접근방법이 율법과 계명을 나쁘고 무겁게 여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 마음을 하늘로 끌고 올라갑니다.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율법과 계명도 지켜지게 됩니다. 율법과 계명이 나를 태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종점을 향해 가는 열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에 대해 가지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 계시된 계명과 율법까지도 기가 막히게 좋은 것들입니다. 나의 삶을 뱃놀이하듯이 만들어주는 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해하여 지키라고 하고 지키려고 하기에 부담스럽고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두 독수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과 느부갓네셀 왕을 의미하고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과 당시의 바로였던 호브라를 의미합니다.
3절을 보면 첫 번째 독수리에 대해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강한 군대로 여러 나라와 민족을 정복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언급되는데 이는 레바논 지역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을 의미합니다.
또 4~5절에서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 가에 심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야긴 왕을 잡아서 바벨론에 두고 시드기야 왕을 세웠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BC. 597년에 2차 침공에서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일 것을 전했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애굽과의 단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애굽과의 동맹을 추진합니다.
여기서 시드기야 왕은 선민의 대표로 비유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싫어하는 것처럼 선민들이 하나님의 뜻을 싫어했습니다. 또한 시드기야 왕이 애굽을 좋아했다는 것은 선민들이 자신의 뜻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뜻도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식민치하에서 일본을 싫어했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킴에 있어서 주역을 담당했던 미국을 좋아했듯이 내 뜻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게 된 이유는 결국 마음을 하늘로 올려 보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기쁨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쁠 일이 땅에 있다고 믿는데 마음이 땅을 등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33세의 나이로 땅을 등지고 하늘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한 기쁨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원은 땅을 등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기쁨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선민들이 그랬듯이 마음에 다른 신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였습니다. 여기서 다른 신이란 내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되리라 믿어지는 대상입니다. 나인 성 과부에게는 죽은 아들이 신이었습니다. 사업하는 사장님에게는 사업의 흑자가 신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서로를 신으로 여깁니다. 기쁨과 만족이 이러한 대상을 통해서 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유일한 신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마음은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당연히 천국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열차는 탈 수도 없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땅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자녀들의 형통함, 심지어 취미생활까지도 모든 기쁨의 이유들이 땅에 있는데 굳이 하늘을 향할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바로 다른 신을 마음에 품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올라탈 수 없습니다.

목사님도 마음이 땅에 있고 교인들도 마음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지키자는 말씀이 입으로만 전파됩니다. 마음이 땅에 있는 한 목사님도 못 지키고 교황님도 총회장님도 못 지킵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천국 발 이땅 행 고속열차이기 때문에 출발점에서 타지 못하면 도중에 올라탈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음에 다른 신을 품고 이 땅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는 일이 이처럼 위험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올라타서 뱃놀이 하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권사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자녀들이 하나 같이 믿음이 좋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후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맞장구를 칠 수가 없었기에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간구자체가 엉터리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에 다른 신을 두고서 그에 맞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마음에 돈이 있어야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다른 신으로 마음에 끌어들인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사업도 하고 장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에 돈이라는 다른 신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업을

해야 할까요? 어떤 장사를 해야 할까요?"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라는 다른 신을 잘 버는 방법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중에 내게 알려지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마음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에게 전해질 하나님의 유일한 뜻은 "너 그러다 망한다. 망하지 않으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신을 담고 있는 마음 상태를 죽여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이 천국 발 이땅 행 고속열차를 타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다른 신을 들여놓았다는 것은 돈이라는 종착지를 멋대로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싣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발 소원행 열차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간구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창조 이후로 하나님께 이런 뜻은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서 배우자나 자녀들이 다른 신이 되어 있기가 십상입니다. 이들로 인해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답시고 "하나님! 자녀가 A대학과 B대학 중에 어디를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또는 A라는 여자와 B라는 여자 중에 누구와 결혼해야 합니까?"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구에 대해 하나님이 제시하실 대답은 "네가 마음에 품고 있는 자녀의 대학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한다."라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올라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원하는 응답을 들을 수 없으니 결국 사이비 예언기도하는 자를 찾아가거나 점치듯이 기도하는 곳에 찾아가서 머리를 들이밉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상숭배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22~23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높은 가지와 연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고 각종 새가 깃든다는 것은 이방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 생활화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좌로 보내는 시도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우리의 마음은 천국발 이땅행 하나님의 뜻의 열차에 올라타게 됩니다.

거꾸로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마음에 다른 신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것과 생활화는 별개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는 마음에는 다른 신이

담기게 됩니다. 목사님들도 예배당을 짓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면 예배당을 다른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기쁘다면 부흥이 다른 신이 된 것입니다. 부자 장로님이 헌금을 많이 해서 기뻐하면 돈이 다른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땅에서 다른 신을 담고 있으면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십자가 생활화의 과정을 다시 한 번 정리해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다른 신 섬기기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까지 다른 신을 섬기던 죄악을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건강하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수 있지만, 실은 마음에서 돈과 건강이 다른 신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행음입니다. 이것을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냄으로써 땅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기를 중단하고 날마다 반복하는 것이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은 죽음의 터널을 지나 세상을 빠져 나오는 것으로써 마음에서 다른 신이 일체 배제된 상태입니다. 오직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만으로 얻을 수 있음을 확실히 알고 믿으며 고백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또한 예수님의 승천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마음이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가게 됩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내신 길을 따라 하늘로 향해서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하여 사위일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고, 땅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에 올라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 쉬지 말고 기도하라 /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편하게 해석하자면 “항상 십자가를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 쉬지 않고 십자가를 볼 때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 범사에 십자가를 보아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십자가 생활화는 천국발 이땅행 고속열차가 출발하는 역으로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서 하나님의 뜻에 올라타게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올라타면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기차나 비행기에 올라탄 것처럼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땅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는 마음을 계속해서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의 승천에 참여하여 실제로 하나님으로 기쁨과 만족함을 얻게 되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올라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민의 대표였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싫어하듯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고 애굽을 좋아하듯 자신의 뜻을 좋아했습니다. 선민들의 마음이 이 땅을 떠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벨론처럼 싫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쁨과 만족이 땅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선민들이 망하게 되었던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야 하는 대상은 가족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형통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따로 찾아야 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마음에 담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 발 이땅 행 하나님 뜻의 열차에 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올라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 생활화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로 우리의 삶에서 천만 가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이 주님을 따라 올라가서 천국 발 이땅 행 열차에 올라타서 흘러가는 물에 뱃놀이 하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